



보장 받고 보시하고 '기쁨 두배'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에 동참하세요”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로고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동참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나도 보장 받고 교계의 숙원인 승려노후복지사업을 위한 보시금으로 기부되니까요”

교계 모 회사의 K부장은 조계종이 노스님 기거센터 건립을 위해 펼치고 있는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에 동참했다.

K부장은 계약이 만료된 자동차 보험과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자동차 보험과 새로 종신보험을 들면서 사망시 나오는 보험금의 10%를 종단에 기부하는 약정도 체결했다. 이렇게 되면 K부장은 사망시 부인과 자녀들이 90%를 수령하고 10%는 종단에 자동으로 기부된다. 그동안 승려노후복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교계에서 여러번 스님들의 금융사고를 목격해온 K부장은 보험금중 일부가 사후에 종단의 승려노후복지 및 불교복지단체 후원금으로 사용되는 만큼 보시하는 참 불자의 길을 갈 것 같아 마음이 흡족하다.

현재 스님들의 노후복지 수준은 다른 종교 성직자들과 비교해 매우 낮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센터 이용하 부연구위원이



조계종 자비의보험금 나눔운동 본부장인 보정스님(총무원 재무부장·사진 맨오른쪽)과 사무총장 각원스님(재무국장)이 효과적인 캠페인 추진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박재환 기자

사망 보험금 일부 기부 스님 노후복지기금 활용

<연금포럼 제12호>에 기고한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정책방향'에서 성직자의 노후 준비정도를 조사한 결과, 불교의 경우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59%였다. 특히 각 종교의 종파 및 교파별 응답에서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체계적인 노후보장제도가 없는 조계종이 오히려 61.4%로 가장 높았다.

1만2천명의 조계종 스님중 9백여명이 원로스님인 상황에서 승려노후복지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역대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마련이 항상 결핍될로 작용해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에 법장 스님이 취임하면서 임기중 중점사업으로 승려노후복지제도 구현을 선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법장 스님은 “조계종 원로스님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종단안정과 화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밝혔다.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근 발족한 조계종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본부(본부장 보정 스님, 조계종 재무부장은 그런만큼 교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본부는 △의식주 및 건강 노후자금을 지원하는 승려노후복지제도 마련 △노스님 기거센터 건립 △스님 수발보급 보급 △불교사회단체 현실적 지원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와 포교차원에서 추진되는 조계종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은 2005년부터 노스님 기거센터가 2개 교구본사에 시범적으로 건립된다. 이후 연차적으로 2009년까지 전국 교구본사에 노스님 기거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노스님 기거센터에는 법당과 요사채, 진료실, 식당, 체육실, 목욕탕 등의 제반시설을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 실손보상과 제반 의료지원이 가능한 스님 전용 보증을 개발해 2005년부터 스님들의 의무가입을 실시한 뒤 65세 이후 매월 활동 보시금을 지급하고, 공적기금을 조성해 2007년부터 종합수발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스님들과 불자들이 조계종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에 동참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스님들은 의료, 노후자금이 제공되는 승려수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

의 화재발생시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찰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불자들이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가입시 조계종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본부에 가입하면 별도의 부담없이 자비실현이 가능해진다.

또 스님과 신도들이 공히 사망보험금 보시운동에도 동참이 가능하다. 종신보험, 스님 수발보험, 정기보험, 보시보험등에 사망보험금이 가능하도록 컨설팅하여 사망보험금의 일정액을 종단에 자동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사망보험금의 보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기금조성이 가능해 사회복지를 위한 운영비로 활용된다.

이같은 보험금 기부운동은 최근 각종교를 비

롯해 사회복지단체의 새로운 기부운동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의 경우 2년간 6천 명이 1% 기부로 2800억의 재원을 마련했다.

조계종 김영주 재무부장은 “스님들의 노후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복지기금 마련이 시급하다. 종단이 분담금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익구조 창출이 필요하다”며 “조계종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찰의 경우 종무소에 부스를 상설 운영하고, 신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 사찰의 홍보를 통한 종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02) 2011-1750, 2003-5793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조계종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이렇게 운영됩니다

♥ 누가 진행하나

조계종은 총무원 내에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본부 사무실을 개설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보정 스님을 본부장으로 재무국장 각원 스님을 사무총장, 재무과장 김영주씨가 실무와 재정, 기획홍보는 케이비엘피 김원우이사, 사회복지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찬정과장이 담당하고 있다.

또 전국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신도회장을 자문단으로 구성한 뒤, 중앙신도회, 사회복지단체, 언론사, 신행단체, 불교계 기업을 후원기관으로 선정중이다.

보험업무는 (주)케이비엘피가 맡아 보험개발과 판매, 스님 신도들에 대한 복지증진, 자금관리서비스를 한다.

♥ 어떻게 동참하나

승려수발 건강보험=스님들의 수행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 노후자금, 주거환경을 제공. 건강보험 가입시 노스님 기거센터 입주권도 제공된다.

사찰종합보험=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화재발생시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현재 1억원이 보상되면서도 고액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존 화재보험과 차별화된다. 조계종 소속 본말사와 조계

종 사회복지시설 및 종합학교가 가입대상이다.

자동차보험=자비실현의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보험사와 제휴하여 불교계 종무기관과 산하기관 협력기관 임직원과 일반신도들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다.

사망보험금 보시운동=신도들의 경우 종신보험, 스님 수발보험, 정기보험, 보시 보험등에 사망보험금이 가능하도록 컨설팅하여 사망보험금을 종단에 자동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보험금의 보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기금조성이 가능해 사회복지를 위한 운영비로 활용된다.

♥ 조계종 총무원의 정책지원은

조계종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조계종 총무원은 우수 참여 본사를 대상으로 업무평가를 실시한 뒤, 우선순위로 노스님 기거센터를 건립해줄 방침이다. 또 사망보험금중 일부에 대해 불사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 참여 스님들에게는 노스님 기거센터 입주권을 부여하고, 우수 참여스님에게는 종단차원의 행정적 혜택이 부여된다.

■ 도와주세요

기업은행 노조, 나눔의 집 지원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3월 18일 경기도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후원금 약정식을 맺고, 이번 달 25일부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의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할 후원금은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올 3월부터 노동조합회원이 용돈을 절약해 조성된 것이다.

■ 도와주세요

‘사랑의 후원물품 기다립니다’

부산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후원물품 나누기’ 행사를 벌인다. 후원 내용은 독거노인 생선상 차려드리기, 경로식당에 사용될 주방용품, 장애아동 맑은 소리터 교실에서 이용될 통화책 등이다. (051)264-9033

■ 결연신청

‘보고난 불서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서울 서초2동 한동로씨가 불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는 “실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불서를 보시했으나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02)3473-1364

특별취재팀

김원우 차장, 박봉영 기자, 김철우 기자

■ 나눔의 손잡기 동참

한미음선원(원장 대행)이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대대적으로 참여했다. 다음은 안양 본원을 비롯한 각 지역 한미음선원 1차 동참내역이다.

경기도 안양시 한미음선원 안양본원(주지 해원스님) 저금통-300개 스티커-700장

부산광역시 한미음선원 부산지원(주지 해도스님) 저금통-170개 스티커-200장

광주광역시 한미음선원 광주지원(주지 해원스님) 저금통-175개 스티커-200장

대구광역시 한미음선원 대구지원(주지 해스님) 저금통-100개 스티커-100장

경북 문경시 한미음선원 문경지원(주지 청해스님) 저금통-50개 스티커-100개

● 나눔의 가게

- 서울 충정로 음식점 우물뚝배기 02-312-6636
- 부산 범일동 승복양장지 전문도매상 대양상회 051-646-5757
- 전주 효자동 각종 불서 도소매점 책읽는 마을 063-231-7722

■ 나눠드립니다

우리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 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23만여명의 저소득 장애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합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저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 '우리웃' 캠페인과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